國語의 系統研究에 關하여

——그 方法論的 反省——

金 芳 漢*

알타이語比較言語學에서 뿐만 아니라, 韓國語의 系統을 解明하기 위한 國語와 알타이語와의 比較研究에는 方法論的인 面에서 解明되어야 하고 또 反省해야 할 根本的인 問題들이 許多하게 內包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根本的인 問題들이 참다운 言語學的 觀點에서 그다지 眞摯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간혹 그러한 難點이 意識되었다 할지라도 暗默中에 그것은 當然한 宿命的인 것처럼 생각되고 一따라서 再次·再三 考察하고 反省하려 하지 않거나 혹은 意識·無意識的으로 그들 問題에서 回避 혹은 外面하고말게 되는 例가 許多하다. 그러한 研究에서는, 根本的인 問題가 解明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研究結果가 恣意性 없는 絶對的 正確性을 가진 것처럼 錯覺되고, 方法論的 反省의 機會를 잃게 된다. 國語와 알타이語와의 比較에서 우리가 항상 警戒해야 할 點이 바로 여기 있다. 方法論的 土台가 確固하지 않으면 恣意的인 혹은 一面만의 合理性을 띄운 推理結果가 마치 蜃氣樓처럼 보이기 마련이다. 이러한 點을 理論的으로는 充分히 理解하고 있으면서도, 實際研究에서는 여기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事實이 아닐까? 筆者가 本稿에서 論하려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疑訝에서 出發한다. 그렇다고 그러한 問題를 全部 여기서 다루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筆者自身이 늘 切實히 느끼고 생각하는 몇 가지 問題만을 指摘하려고 한다.

11. 印歐語比較言語學의 方法論과의 關係：印歐語比較言語學은 實로 눈 부신 發展을 거듭하고 놀라울만한 精密·正確한 業績을 거두었다. 따

*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副敎授(言語學)

라서 이 方法論이 意識·無意識的으로 다른 言語의 研究에 있어서도 基準이 되어왔다. 그러나 言語構造自體의 差異뿐만 아니라, 利用할 수 있는 資料의 量과 質에도 여러모로 差異가 있고, 또한 實際研究를 통해서 여기 그 基準의 普遍的 有效性을 疑心하게 된 것은 當然하다. 그러나 問題는 바로 여기 있다. 가령 알타이語比較研究에서 혹은 國語와 알타이語와의 比較研究에서 印歐語比較言語學의 方法이 어느 範圍內에서 또한 어느 程度의 有效性을 가지고 있고, 또 새로운 固有한 方法論이 樹立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어떤 範圍에서 어떠한 事項에 關한 것인가? 이것은 最終의 問題일 것이다. 그러나 同時에 出發點의 問題도 될 수 있다. 알타이語比較研究에서, 우리는 特히 國語와 알타이語와의 比較研究에서, 印歐語에 있어서의 方法이나 基準이 그대로 適用될 수 없다는 것을 切實히 느끼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그것이 果然 어느 程度의 科學的인 根據를 가진 判斷인가? 筆者가 알고 있는限, 이 根本的인 問題가 眞摯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印歐語의 比較方法이 다른 言語에는 그대로 適用될 수 없다고 常識化된 것처럼 말하는 것을 흔히 듣는다. 그러나 그러한 判斷이 常識化되기에 앞서 學問的인 確固한 根據가 있어야 한다. 우리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이러한 問題가 果然 어느 程度 解明되었는가? 或者는 말한다. 印歐語의 比較方法이 다른 言語의 比較研究에는 그대로 適用될 수 없지만, 그 根本原理 혹은 根本精神에 있어서는 同一하다고. 이러한 경우, 그 「根本」이란 무엇이며, 그 範圍의 限界는 具體的으로 어디 있는가? 이것 역시 最終의 問題일런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各 研究段階에서 항상 反省하고 追求해 나아가야 할 問題일 것이다. 이러한 意識없는 研究는, 結果에 對한 批判의 餘裕를 주지 못한다. 이러한 點에서 우리는, 作業할 때 우리가 서 있는 研究過程에 있어서의 位置를 항상 反省할 必要가 있다.

12. 比較研究의 方法論에 關한 問題가 深刻한 論議對象으로 浮刻된 것

은 特히 美國土人言語(the Amerindian language)硏究에서라 하겠다. 알타이語硏究에서만 아니라 다른 言語의 硏究에서도 多少 問題되었고, 또한 問題되고 있는 것은 事實이지만, 美國土人言語에서는 그것이 더욱 深刻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수 없었던 것은 그것대로의 몇가지 理由가 있다. 그중 가장 根本的인 理由는, 첫째 史的으로 遡及해 갈 수 있는 硏究資料가 없고, 다만 比較的 새로운 言語狀態의 共時的 記述만이 唯一한 硏究資料라는 點에 있다. 印歐語硏究에 있어서의 量과 質的으로 豐富한 오랜 文獻資料에 比較하면 알타이 語硏究에서는 많은 制限을 받게 된다. 여기 對해서 美國土人語硏究에 있어서는 極히 悲觀的이다. 이러한 點에서 印歐語比較言語學의 方法이 그대로 適用될 수 없는 첫 難關에 當面하게 되고, 여기서 方法論的 問題를 深刻하게 意識하게 된 것이다. 둘째理由는 印歐語와 美國土人語의 言語構造上의 差異에 起因하는 것이다. 셋째 理由는 祖語에서의 分裂年代가 대단히 오랜 것이어서, 印歐語族에 있어서와 같은 親疎關係를 決定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方言間에는 基本的인 文法構造의 特徵에게서 서로 影響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서 同一祖語로 遡及하기 不可能할 때가 있는 不利한 與件에서 硏究해야만 한다는데 있다. 이러한 點에서 美國土人語硏究에서는, 다른 言語를 硏究할 때와는 相異한 與件에서 그들 스스로의 새로운 方法論的 試圖가 行해지고 있으며 또한 그들의 不利한 與件을 克服할 수 있는 硏究方法을 樹立하려고 힘쓰고 있다. 그러나 Greenberg는 根本的인 面에서는 印歐語의 比較方法이 有效한 것으로 一般的으로 是認되고 있다고 한다[1]. 이와같이 美國土人語에서도 印歐語의 比較方法이 文字 그대로 全部 無效化되는 것은 아니다.

13. 이러한 點에서 Haas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觀點을 提示하고 있

(1) J.H. Greenberg, Historical linguistics and unwritten languages(Arthropology Today, Chicago 1953, p. 385).

다[2].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文字 그대로 전혀 새로운 것만은 아니고 또한 반드시 美國土人語研究에만 制限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어느 言語에서도 研究가 發展함에 따라서 自然히 問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參考삼아 簡單히 살펴볼만한 價値가 있다.

〔A〕既存資料에 對한 새로운 解釋： 이미 利用되었거나 또 利用되고 있는 既存資料에는, 根本的으로 重要하면서도 意識하지 못했거나 혹은 從來의 研究에서는 다룰 수 없었던 事實들이 그대로 放置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事實에 對한 再認識은, 研究의 發展——特히 方法論의 精密化와 끊임 없는 反省에서 비롯된다. 가장 좋은 例는 1879年에 Saussure가 設定했던 印歐語에 있어서의 schwa ə라 하겠다. Saussure가 既存資料를 통해서 理論的으로 推定했던 schwa ə가 50年後 Kurylowicz가 Hittite語에서 ḫ로 轉寫되는 것과 同一한 것임을 알게 되었던 것은 有名한 例라 하겠다. Saussure가 schwa ə를 設定했을 때는 Hittite語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았고, 다만 既存資料를 새로운 觀點에서 研究한 結果인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이러한 例가 許多히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事實에 對한 再認識은, 單純한 研究만으로서는 도저히 바랄 수 없으며 새로운 觀點이나 方法論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 再次 強調되어야 할 것이다.

〔B〕새로운 親近語의 發見： 새로히 比較對象으로 登場하게 되는 言語는, 從來研究에서 이미 再構된 다른 proto-language와의 關聯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알려진 다른 親近語와도 關聯해서 研究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 다른 親近語에 關한 研究가 어느 程度의 水準에 이르지 못했거나 또는 그들 言語의 比較研究結果가 滿足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새로운 親近語의 發見만으로는 큰 意義가 없다. 새로 發見된 어

(2) M.R. Haas, Historical linguistics and genetic relationship (Current Trends in Linguistics Ⅲ, The Hague 1966, pp. 131～133).

면 言語가 다른 어느 言語와 親近性이 있음이 밝혀졌다면, 그 言語自體에 對한 硏究가 어느 程度 行해진 結果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要는 硏究된 結果의 깊이다. Saussure의 schwa ə의 設定이 없었다면 Hittite 語自體에서 볼 수 있는 b의 正體도 正確하게 捕捉되기 어려웠을 것이고, 또한 理論的으로 設定된 schwa ə도 直接的으로 實證되지 못했을 것이다.

〔C〕 比較言語學에서 가장 重要한 새로운 比較方法이라 하여 Haas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있다. 어느 protolanguage를 다른 protolanguage와 比較하거나 혹은 親疎關係가 確實하지 않은 孤立的인 言語를 따로 protolanguage와 比較하는 것이다. 從來 印歐語比較言語學에서도 이러한 方法이 曖昧하게 意識되기는 했으나, 여기 새로운 方法論을 開拓한 것은 美國土人語硏究에서 Whorf-Trager가 취한 比較方法이라고 한다. 그한 例로, 再構된 A protolagnuage와 B protolanguage를 相互比較하는 것이다. 이 作業이 그들 protolauguage보다더 오랜 高次的인 protolanguage를 決定하려는 것임은 더 말할 必要도 없을 것이다. 從來의 印歐語比較言語學에서는 再構된 protolanguage끼리의 比較는 全般的으로 行해지지 않았던 것이다. 大槪의 경우, 여러 親近語에서 直接 確認되는 要素들을 比較하여 祖語形을 再構하는 것이 보통이다. Haas는 다음과 같은 한 例를 보여주고 있다(proto-Algonkian과 proto-Muskogean의 再構形이 決定되면, 그것을 다시 比較하여 protloanguage의 再構形이 修正된다.

	'fish'	'squirrel'	'tree'
PA	*name·kw-	*aniku	*me?tePw-
PM	*NaNi/u	*ix^{w}ani/u	*itti/u
PM(修正)	*NaNiku	*ix^{w}aniku	*ittiku

우리는 여기서 두 protolanguage의 再構形을 比較함으로써 한 再構形이 修正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 protolanguage의 再構가 다른 protolanguage 와의 比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方法의 例라

고도 하겠다. 이러한 方法이 Haas가 말한 것처럼 어느 程度의 새로운 意義를 가지고 있는지는 곧 判斷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이러한 方法에 의해서 美國土人語研究에서 많은 效果를 거둔 것만은 事實이다.

比較研究의 目的은 어느 言語의 研究에서도 同一한 것이다. 그러나 各言語에는 特異한 與件이 있기 때문에 研究節次上의 差異를 豫想하지 안을 수 없는 것이 事實이다. 筆者는 이렇게 特異한 與件을 前提로 하고 研究節次上의 差異를 考慮한 좁은 뜻으로 알타이語 比較研究의 方法論(比較言語學의 一般的 方法論에 對해서)이라는 用語를 使用했다. 여기서 研究節次라 함은 大體로 procedure에 一致한다. 研究節次는 方法論的 原理에 의해서 決定될 것이지만, 또한 同時에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特異한 與件에 의해서도 差異를 가져온다.

21. 우리의 경우, 알타이語祖語니 혹은 原始國語니 하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祖語」니 「原始」니 할 때 實際로는 그 槪念이 상당히 曖昧하다. 먼저 祖語의 槪念을 正確히 規定해 둘 必要가 있다. 첫째 祖語의 槪念에는 時間的·空間的 넓이가 當然히 內包돼 있어야 한다.

이러한 뜻에서, 記錄된 것이든 혹은 記錄이 없는 言語이든 自然言語(naturel language)에서 再構된 것을 一次的이라 할 수 있다면, 둘 혹은 그 以上의 再構된 親近語와의 比較에서 再構된 것은 二次的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서 再構된 것에는 時間的인 깊이가 內包되어 있다. 이러한 槪念은 다시 다음과 같이 擴大될 수 있다. 一次的 再構作業에 參與할 수 없는 言語——다시 말하면 親疎關係가 確實하지 않은 孤立된 言語(혹은 方言)은 一次的 혹은 二次的 再構形과 比較함으로서 그 系統的 親疎關係를 決定할 수 있다고 한다[3].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再構는 一次的인 것의 擴大가 아니라 實은 二次的인 再構가 된다.

一次的 共同祖語(例, 印歐語祖語)에서 뿐만 아니라 二次的 祖語(例:

(3) Ibid., p. 139.

(German 祖語)——이 경우의 一次, 二次라 함은 앞에서 말한 再構에 關한 것과는 반드시 一致하는 것은 아니다——에서도 時間的인 깊이가 問題가 된다. 그 뿐만 아니라 二次的 祖語에서 分裂한 어느 한 言語의 경우에 있어서도 같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言語史가 比較的 充分하게 잘 硏究되어 있을 때, 正確性의 可能性이 높아지는 것이 當然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우리는 이러한 基本的인 考慮를 항상 念頭에 두어야 할 것이다.

外國語의 用語에 있어서도, protoucommon 이니 할 때, 그 槪念에 差異가 있고, 또한 曖昧한 경우가 많다. 이것 역시 時間的 깊이에 對한 意見差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에는 German 語에 있어서의 實際的인 例를 보기로 한다[4].

	VAN COETSEM	MAKAEV	LEHMANN
(PROTO-)IE	*pətḗr	*pətḗr	*/pətḗr/
PRE-GMC	—	—	*〔faðḗr〕
PROTO-GMC.(EARLY GMC)	faðḗr	*pʰatʰḗr	*/fáder/〔fáðer〕
COMMON GMC.(LATE GMC.)	fáðer	*fáðer	—

여기서 보면 van Coetsem. Makaev, Lehmann 三者가, German 語의 有史以前 段階를 區別하는데 있어서, 그 槪念이나 用語에 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段階區分의 基準이된 것은 有名한 Grimm 法則이다. 그 差異를 보면 첫째 Lehmann 이 前二者와는 달리 common Germanic stage 를 拒否하고 pre-Germanic stage 를 設定하는데 있다. van Coestem-은 proto-Germanic stage 에 German 語子音推移(Grimm 法則)과 Verner 法則이 表示하는 變化를 두고 있으나, 二音節에 있던 accent 의 一音節로의 固定化는 common Germanic stage 에 두고 있다.

여기 對해서 Makaer 는 proto(Early) Germanic 을 Germanic 語子音推移의 過渡期的 段階에 두고, Verner 法則이 表示하는 變化와 accent 의 推移를 common(late) Germanic 時期에 두고 있다. 그러나 一面 Lehman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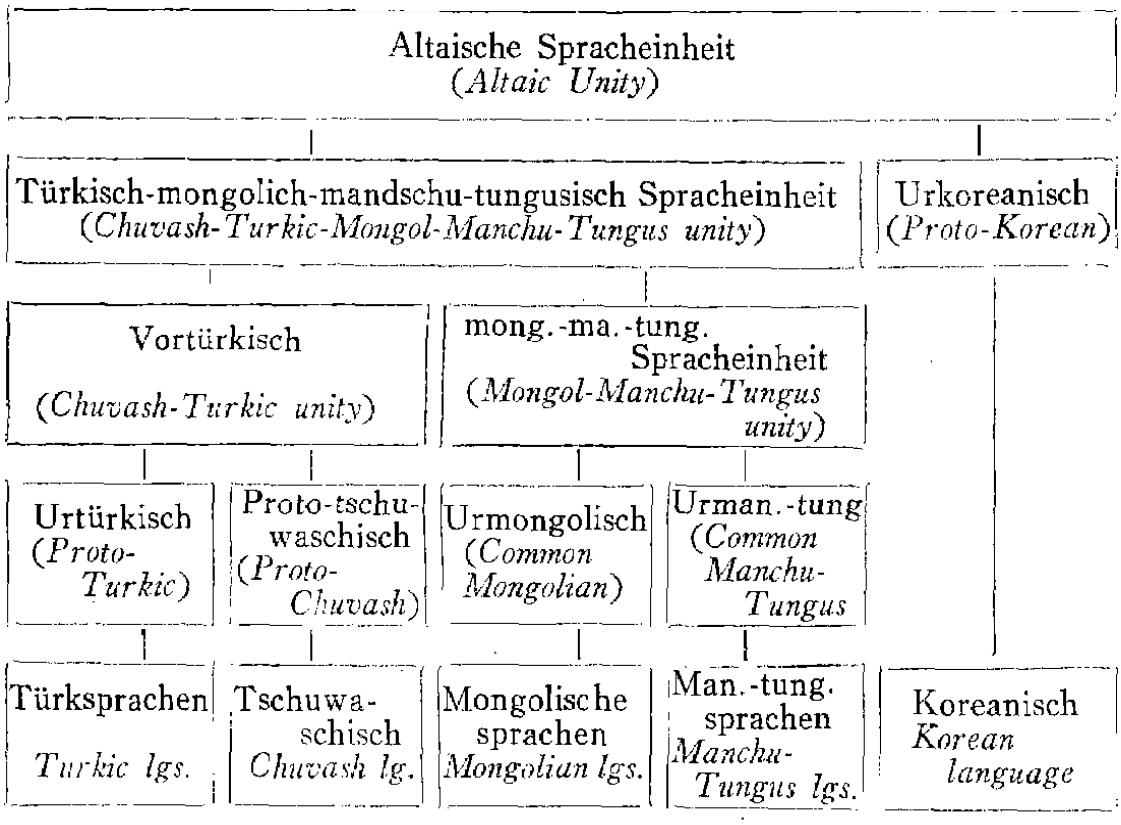
은 그 子音推移를 pre-Germanic에 두고(여기에는 아직 流動的인 accent의 位置에 의해서 條件化되고 有聲 無聲 摩擦音의 變異音的 變化가 包含되어 있다), accent의 固定化와 有聲·無聲 摩擦音의 音韻化를 proto-Germanic stage에 두고 있다. 여기서 보면, 이런 差異는 그것이 單純한 用語上의 差異에서 비롯되는 結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van Coetsem이 common Germanic이라고 부르는 時期와 Makaer가 common 혹은 late Germanic이라고 부르는 것은, Lehmann의 proto-Germanic에 一致하고, 또 Makaev의 proto-Germanic (혹은 early Germanic)은 Lehmann의 pre-Germanic時期에 屬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用語上의 差異가 심지어는 槪念上의 差異를 가져오는 例도 있고 여기서 意見이 달라지게 된다.

Makaev에 의하면, proto-Germanic은 印歐共同祖語에서 分裂하여 Germanic言語社會가 이루어진 時期를 말하며, 여기서 common Germanic가 시작되는데, 이 時期에 그 言語社會에서 個別的인 方言群이 나타난다. Makaev에 의하면 common Germanic에는 early Germanic와 late Germanic가 包含된다. 그러나 內的 證據에 의해서 모든 方言에서 再構되는 單位의 時期을 表示하기 위해서 Proto-, Common 어느 名稱이 좋은지에 對해서는 一定한 見解가 없으나, common Germanic이라고 할 때는 實際로 印歐共通祖語의 分裂로부터 後代의 各方言에 共通的(Common)인 特徵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뜻으로 使用되고 있다.

22. Poppe는 알타이語의 親疎關係를 다음과 같은 系譜圖로 提示한바 있다[5]. 弧括에 넣은 이탤릭體로 된 것은 「알타이語學槪說」에서 同一한 系譜圖를 英語로 提示한 것이다[6]. 여기서 우리는 첫째, 用語上의 差異

(4) E.H. Antonsen, On defining stages in prehistoric Germanic, Lg. 41—1 (1965), p. 21.
(5) N. Poppe, Vergleichende Grammatik der altaische Sprachen, 1960, p. 8.
(6) N. Poppe, Introduction to Altaic linguistics, 1965, p. 147.

을 發見할 수 있다. Urtürkisch, Proto-tschuwaschich가 Proto-Turkic, Proto-Chuvash로 된 것, 그리고 Vortürkisch가 Chuvash-Turkic unity로 되어 있는데 注目된다.



그는 Chuvash-Turkic 語를 說明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7].

...the Turkic languages...are descendants of Common Turkic, a *z*- and š-language, whereas Chuvash is the descendant of a r- and l- language ...which was close to *Common Turkic* (otherwise called *Proto-Turkic*) but not identical with the latter. The ancestor of Chuvash and Common Turkic constituted a unity which preceded in time the appearance of Common Turkic. The unity can be called *Pre-Turkic*. The relatienship of Chuvash and the Turkic languages can be represented schematically as follows:

Pre-Turkic	
Proto-Chuvash	Proto-Turkic
Chuvash	Presently existing Turkic languages

(7) Ibid., p. 33.

여기서 보면, Vortürkisch에 Pre-Turkic이 該當하며 또 Common과 Proto-는 같은 意味로 使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Urtürkisch, Proto-tschuwaschisch는 各各 *Proto*-Turkic, *Proto*-Chuvash라고 하면서), Urmandschu-tungusisch는 이것을 *Common* mongolian, *Common* Manchu-Tungus라 하고 있다. 또한 Urkoreanisch의 경우는 Ur-가 Proto-로 되어 있다. Ur-에 對한 Proto-와 Common이 用語上의 單純한 差異인지 혹은 어떤 特別한 뜻이 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하면 Urmongolisch에서 여러 方言이 分裂하기 때문에 그것을 Common Mongolian이라 한다면, Urtürtisch의 경우에도 여기서 많은 方言이 分裂하는데 이 경우에는 왜 Proto-라 하는가? Common과 Proto-를 實際로 같은 뜻으로 보고 있다면 왜 토이기語의 경우에는 Proto-라 하고, 滿·蒙語의 경우에는 Common으로 統一되어 있는가? 그리고 Altaische Spracheinheit (Altaic unity)는 Common Altaic와 同一한 뜻으로 使用되고 있다: Whereas Poppe applies the term Common Altaic to hypothetical parent language of Turkic-Mongolian-Monchu-Tungus-Korean.....(8).

위에서 본바와 같이 筆者가 보기에는 적어도 Ur-, Prot-(獨) 및 Proto-, Common (英)의 概念이 明確하지 않다.

Pre-의 경우에는 比較的 明白하다: Pre-Turkic split into Proto-Bulgarian (which later on became Volga Bulgarian, the ancestor of Chuvash) and Common Turkic (the ancestor of the present Turkic languages). Pre-Mongolian became gradually Common Mongolian. The latter, i.e., Common Mongolian, is characterized by the following.....(9).

그러므로 여기서 Pre-Turkic라 함은 實際로 Vortürkisch에 該當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Chuvash의 경우에는 Proto-이고 Turkic의 경우에는

(8) Ibid., p. 147.
(9) N. Poppe, Introduction to Mongolian comparative studies, 1955, p.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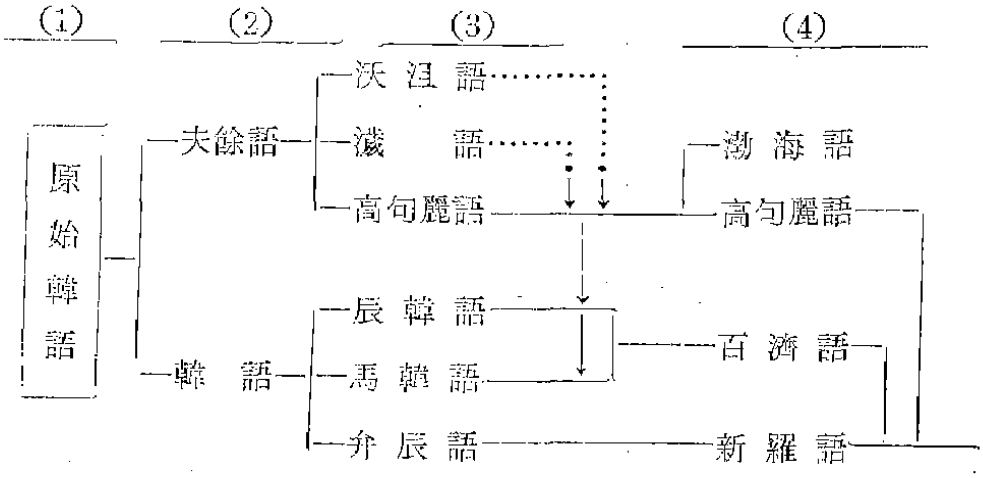
Common으로 「比較文法」에서와 같다. 이것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Introduction* 「알타이語學槪說」에서는 英語의 Proto-로 統一되어 있다. 이것은 Poppe의 새 著書의 出版年代로 보아 最終(1965年)인 「알타이語學槪論」에서 用語의 統一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도 解釋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이미 말한보와 같이 Proto-와 Common의 槪念이 曖昧하다. 그러나 우리도 大體로 (Altai)共通祖語→Pre-→Proto-(=Common)라는 區分을 볼 수 있다.

22. 近來 特히 國語의 系統硏究가 활발해짐에 따라서 原始國語라는 用語가 자주 使用된다. 이 때 「原始」(國語)의 뜻이 漠然하기 때문에 도리혀 使用하기 便利한 用語가 되었다. 李崇寧 先生은 原始國語를 다음과 같이 規定한다: 「國語가 太古에 알타이共通基語에서 어떻게 分岐되어 獨立된 言語單位를 形成하였느냐에 대하여는 學者에 따라 異說이 있지만 이때의 國語를 原始國語(또는 原始韓語)라고 부르려 한다. 民族移動에서 본다면, 亞細亞의 北方을 東으로 移動한 民族이 興安嶺 近傍에서 그 一部가 다시 南으로, 또는 東南으로 進路를 잡은 것이 바로 韓民族의 祖上이라고 보며, 이때의 言語가 알타이語에서 分岐되어, 점차 獨立單位로 固定되기 시작하였을 것이니, 이것이 바로 原始國語라고 하겠다. 그러나 南下의 進路는 一定하지 않아서, 一部는 遼東의 海岸地帶를 따라 朝半島로 들어서, 드디어는 半島 南端에까지 이르러 定着한 것이고, 一部는 滿洲 內陸으로 들어와서, 遼河 上流로부터 松花江 流域에 定着한 것이다. 그리하여 前者를 南方系 韓語라고 부르고, 韓者를 北方系 夫餘語라고 부르기로 한다」[10]. 그리고 國語의 時代區分에서 古代語를 『國語의 分岐와 方言의 形成해서, 즉 南北系 言語의 成立부터 新羅末期까지의 方言을 여기 넣는다. 이 時代에는 三國의 鼎立과 各勢力의 盛衰에 따라 方言面의 많은 變動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겠다』로 規定한다.

(10) 李崇寧, 韓國方言史(韓國文化史大系 p. 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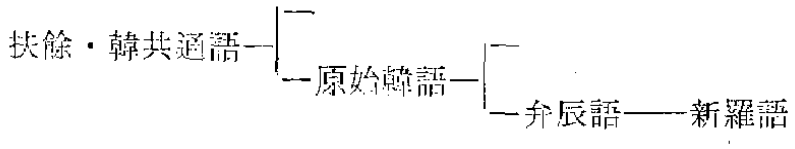
따라서 原始國語는 알타이 共通祖語에서의 分裂로부터 南北系 言語의 成立前까지에 걸치게 된다. 그리고 南北系 言語는 主로 地名을 통해서 推定된 것으로,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最古의 것이기 때문에 原始國語는 實際로 文獻期以前 혹은 言語的 先史時代를 가르키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原始國語는 有史以前의 假想的 段階 혹은 不明段階를 말하는 것이 된다. 이 段階의 國語는 立證的 資料가 없기 때문에, 위에서 본 pre-～proto- Germanic stage와 같은 段階를 設定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Germanic의 경우에도 實際로는 Germanic 子音推移라는 特徵的인 어느 事實을 基準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그것마저 不可能하다.

國語의 時代區分에서 古代語(南北系 言語의 成立부터 新羅末까지), 中世語(高麗時代에서 16世紀까지, 松都語·漢陽語가 標準語가 된다). 近代語(17世紀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로 區分하는 것은[12], 妥當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國語의 系統이나 國語史를 論할 때, 表現的인 實際的 便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古代語를 二分해서 各各, 適當한 名稱을 定해주는 것이 便利하지 않을가 생각된다. 于先 國語의 形成過程에 關한 圖表를 보자[13]. (圖表中 數字는 筆者가 便宜上 記入한게).



(11) Ibid., p. 330.
(12) Ibid., p. 331.
(13) Ibid., p. 348.

여기서 보면 國語의 直接的인 形成母體가 된 것은 新羅語이고, 또한 國語의 直接的인 母體가 形成된 것은 4 段階이다. 그리고 (이 圖表의) 原始國語에서 夫餘語와 韓語 두 方言이 나타나는데, 이 두 方言中 韓語의 弁辰語가 新羅語가 되어 이것이 國語의 直接的인 母體가 된다. 따라서 3과 4를 細分해주는 것이 便利하지 않을가 생각한다. 그리고 2·3·4를 古代語로 잡은 다면 2·3를 前期古代語, 3를 後記古代語로 불러도 無妨할 것이다. 그러나 좀 더 큰 觀點에서 본다면, 國語의 實質的인 母體가 된 것은 圖表中의 韓語이고 또 이것과 夫餘語와의 言語的인 差異를 考慮한다면, (圖表中의)原始韓語라는 名稱은 그다지 適當한 것이 못되는 것 같다. 따라서 圖表中의 原始韓語를 便宜上 「夫餘·韓共通語」 혹은 「夫餘·韓祖語」라 부른다면, 圖表中 2의 韓語가 「原始國語」가 될 것이고, 또한 3 혹은 4에서 古代國語가 시작한다. 이것을 單純하게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圖表中 1·2 즉 夫餘·韓共通語와 原始韓語는 有史以前의 直接立證할 수 없는 段階인만큼, 여기에는 實로 우리가 想像도 못할 여러가지 複雜한 事實이 內包되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한 것 가운데 Ramstedt는 다음과 같은 것을 暗示한바 있다. Ramstedt는 Tungus民族과 Paleoasiatic民族과의 접촉 可能性을 暗示하고 또한 Yukagir語의 soromo와 國語의 saram(人)의 類似性을 提示한바 있다[14]. 우리는 Paleoasiatic라고 부르는 것 自體가 曖昧할 뿐만 아니라 原始國語의 狀態조차도 알 수 없기 때문에, Ramstedt가 暗示한 것을 評價하기 조차 어렵다. 그러나 퉁구스民族의 人種的 起源問題에 關한 여러가지 學說을 보면[15],

(14) G.J. Ramstedt, Einführung in die altaischen Sprachwissenschaft I, p. 16.

Ramstedt가 그러한 것을 暗示한 意圖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現狀態에서 그 以上의 것을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guess work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Ramstedt가 暗示한 것은, 그가 하나의 새로운 觀點을 보여주었다는데 興味가 있다.

31. 音韻對應의 規則性: 印歐語比較言語學의 方法에 對한 普遍的 有效性을 否認하고, 特히 그것이 알타이語硏究나 혹은 알타이語와 國語와의 比較硏究에 그대로 適用될 수 없다는 것을 強調하는 나머지, 音韻法則의 有效性까지를 否認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音韻法則을 否認할 만한 아무런 根據가 없다. 音韻法則은 音韻對應의 規則性을 말하는 것이다. 다른 面에서는 相互 親近性을 提示해줄 만한 뚜렷한 類似性이 있으면서도 音韻對應의 規則性을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은 硏究가 아직 그 程度로 發展하지 못했거나 또는 그러한 規則性이 깨트려질 程度의 다른 要因을 찾지 못한 結果일 것이다. Benveniste는 印歐語의 比較方法이 다른 言語에 그대로 適用될 수 없다는 것을 說明하면서도 音韻法則의 重要性은 強調하고 있다[16]. 資料上 極度의 制限을 받으며 또 印歐語와 言

(15) M.G. Lewin, The problem of ethnic origins of the Tungus (金元龍 譯, 퉁구스의 人種的 起源問題, 白山學報 vol. Ⅱ <1967>). 여기 의하면, 퉁구스民族의 傳播以前에 滿州와 韓國에까지 古아세아民族이 居住하고 있다는 說을 發表한 學者들이 있다. 「Vasilevich가 提供한 資料는 東시베리아에서의 先퉁구스 古아시아住民의 廣大한 分布를 말해주고 있다. 特히 많은 에벵크와 에벤(Even)群 言語속에 유카기르要素가 있다는 事實은 몹시 재미있다. 여기서 우리는 시비리아의 江名들을 歷史的民族學的으로 分析한 이루쿠츠크의 地理學者 V.B. Shostakovich의 著書를 想起한다. 大河의 이름들(오브 예니세이 레나 앙가라)은 어느 言語에도 屬하지 않으며 이미 오래 前에 消滅해버린 民族의 言語에서 出發하고 있을 것이다」 ibid., p. 145, 「Shirokogorov의 著書에 나오는 地圖에는 華北海岸地帶 韓國의 大部分 그리고 黑龍江 下流地域은 西紀前 第一千年代에는 古아시아族들이 살고 있었으며, 그들은 韓國의 경우에는 二千年뒤인 現在도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이다」 ibid., p. 19, Shirokogorov의 말은 特히 韓國에 關해서 그대로 믿는 學者는 없을 것이다.

語構造도 전혀 다른 美國土人語의 比較研究에서도 Haas는 다음과 같이 結論을 내리고 있다[17]. 音韻法則의 特徵은 Sapir의 말을 빌리면 the power of predict(豫示力)에 있으며, 言語變化는 形態·意味 語彙등 全般에 걸쳐 일어나지만 그 結果는 the power of predict를 가질 수 없다. 이 the power of predict는, 結局 同一한 環境에 있는 同一한 音韻은 同一한 方向으로 變化한다는 點에서, 同一한 環境에 있는 어떤 音韻은 그 變化를 미리 豫示할 수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러한 意味의 音韻法則에 의해서 Haas는 美國土人語에서 祖語를 再構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18]. Sapir가 말한 것처럼 어떤 言語의 比較研究에서 音韻法則을 發見하기 어려운 경우, 그것은 音韻法則 自體를 無效化 할만한 어떤 言語的인 特徵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을 研究하는 inadquate technique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語彙나 文法要素에 借用이나 偶然的이 아닌 積極的인 類似性이 보이면서도 音韻法則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音韻法則이 無意味한 것으로 無效化되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語彙나 文法的 形態素의 類似性은, 그것이 音韻法則에 의해서 最終的으로 確定된다.

우리의 경우 國語와 諸알타이語사이에 보이는 文法的形態素나 語彙의 類似性에는 그것을 도저히 偶然한 것 혹은 借用에 의한 것으로는 볼 수

(16) La régularité des correspondances phonétiques et la possibilité de prévoir certains évolutions no sont limitées à aucun type de langues ni à aucune région. Il n'y a donc pas de raison d'imaginer que des langues "exotques" ou "primitives" exigent d'autres critères de comparaison que les langues indo-européennes ou sémitique. E. Benveniste, La classification des langues (*Proble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1966. p. 101*).

(17) Haas, op. cit., p. 124, Sapi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If these laws are more difficult to discover in primitive languages, this is not due to any special characteristic which these languages possess but merely to the inadequate technique of some who have tried to study them. Setected wnitings of Edward Sapir (Berkeley-Los Angeles 1949), p. 72.

(18) Haas, op. cit., p. 125 f.

없는 것이 많다. 그러면서도 여기서 音韻法則을 찾을 수 없는 것은 무슨 理由에서인가? 여기에는 우리가 아직 解明할 수 없는 原因이 있을 것이고 또한 方法論的으로 未備한 點이 있어서라 하겠다.

32. 親近關係에 關한 假定은 體系的인 再構에 必要한 前提가 된다. 다시 말하면 豫備調査에 의해서 그러한 再構의 成功 可能性이 보였을 때, 비로서 比較研究가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個別的인 要素의 個別的인 再構에만 滿足할 수는 없다. 個別的인 要素를 音韻體系·文法體系와 같은 體系全體에서 考察함으로서, 비로서 正確한 解明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言語構造에 對한 一聯의 대담한 假說을 세워놓고, 그 中 어느 것이 各 親近語에 實際로 나타나는 現象을 共通的으로 가장 無理없이 說明할 수 있는 가를 研究해가는 方法이 推進되고 있다[20]. 이러한데서 linguistic typology(言語類型學)가 史的 혹은 比較言語學과 接觸하게 되는데, 이러한 見解는 構造言語學의 脚光을 받는 새로운 傾向이라고 하겠다. 言語類型學自體가 決코 전혀 새로운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比較研究 또는 系統研究와 接觸한다는데 價値가 있는 것이다. Benveniste가 말한 것처럼, 言語의 系統的 分類는 그들 言語에 共通된 어떤 型을 決定하게 되는데, 同系言語의 要素를 比較함으로서 그 語族에 固有한 構造를 設定할 수 있고, 여기서 또한 系統的 分類는 同時에 類型的 分類가 된다고 한다[21]. 그리고 言語型의 類似性은 形態的 類似性에 못지 않게 뚜렷한 것이라 한다. Benveniste의 이러한 見解에 對해서 Trubelzkoy는 그와 反對로 純粹한 類型的 基準에 立脚한 系統的 分類도 可能하다는 것을 示唆한바 있다. Leroy도 이것을 方法論的 見地에서 대단히 重要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22], 問題는 Benveniste

(19) Sapir, op. cit. p. 134.
(20) Haas, op. cit., p. 134.
(21) Benveniste, La classification des langues (op. cit., p. 107).
(22) M. Leroy, The main trends of modern linguistics· Oxford 1967, p. 124.

가 말한 것처럼 어떤 類型的 基準이 價値가 있는가? 더 正確히 말하면 系統的 分類가 果然 類型的 基準에 의해서 可能한가 하는 問題가 생긴다. 여기 對해서는 現今 明確한 解答이 없으나, 筆者가 보기에도 類型的 關係와 系統的 關係는 各各 獨立된 別個의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歷史的 테두리에서 벗어난 單純한 特徵的 事實의 결부에 의해서는 系統的 分類가 實際로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系統的 分類를 그대로 類型的 分類로, 또는 그와 反對로 類型的 分類를 그대로 系統的 分類로 옮길 수는 없을 것이다.

위와 같은 두가지 見解에 部分的으로는 是認할만한 點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實際로는 그다지 有效한 方法論的 基礎가 될 수는 없다. linguistic typology와 史的研究는 Jakobson에 의해서 一層 科學的인 方法論的 接近을 보게 되며, 實際研究에서 具體的으로 有效한 것이 된다[23].

33. 言語의 統合(syntagmatic)面이 直接·間接 構成成分의 複雜한 階層(hierarchy)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系列(paradigmatic)面에 있어서의 言語要素의 配置 또는 複雜한 成層(stratification)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여러 體系의 類型的 比較는 이 階層을 考慮에 넣어야 한다—— Jakobson의 類型的 研究는 이 前提에서 出發한다. 文法體系이건 音韻體系이건 그 類型은, 剩餘的인 것을 嚴格히 除去함으로서 最大限의 經濟를 期할 수 있는 論理的 記述에 의해서만 設定할 수 있다. 그러므로 任意로 選擇된 特徵에 立脚해서 設定된 言語類型에서는 滿足할만한 結果를 얻을 수 없는 것이 當然한다. 그리하여 그는 普遍的 有效性을 가진 體系의 構造法則(the structural laws of system)이라는 것을 強調한다. 어느 (史的)段階에서 다른 段階로 變遷하는 言語要素의 目錄은 이 法則에 의해서 制限된다. 다음과 같은 實例를 보자. 印歐語比較言語學에서

(23) R. Jakobson, Typological studies and their contribution to historical comparative linguistics(Selected writings, The Hague 1962. pp. 523~532.)

이른바 laryngeal theory[24]이 나오기 以前이나 혹은 그 說에 反對한는 見解는 類型的인 것을 考慮한지 않고 있다. 一般的으로 有聲/無聲과 有氣/無聲의 對立이 있는 言語에는 音韻 /h/ 가 存在한다. 이러한 一般的觀點에서 볼 때, PIE 의 /h/ 가 그 痕跡도 남기지 않고 消滅해버린 印歐語群에서는 有氣音이 여기 該當한 無氣停止音으로 變化했다. 다시 말한면 印歐語에서 原來의 有氣音이 없어졌기에 (無氣音으로 合流的 變化를 해서), 그 語群에서는 同時에 */h/ 도 痕跡을 남기지 않고 消滅해버린 것이다. 여기 對해서 有氣/無氣의 對立이 있는 語群에서는 原來의 PIE */h/ 가 消滅한 뒤에 다시 어떤 buccal phoneme 에서 새로운 /h/ 가 나타나게 된다[25], 이러한 例에서와 같이 體系의 構造法則에 의해서 音韻 및 形態的 pattern 의 再構가 可能한게 된다. 이러한 研究傾向은 우리에게 示唆해 주는 것이 많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러한 方法을 適用해서 研究해 볼 만한 準備가 되어 있지 않다. 첫째 原始國語의 音韻體系조차 確實한지 않기 대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部分的으로 이미 알려진 事實를 土臺로 類型的 普遍性에 의해서 再構分野가 더 擴大될 可能性은 있다.

41. 印歐語比較言語學에서 代名詞와 數詞의 一致는 親近性을 立證한는 有力한 證據의 한나가 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알타이語研究에서도 數詞와 代名詞가 일직부터 關心을 끌었고, 特히 數詞의 不一致는 여러므로 疑訝心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數詞의 경우와는 달리 代名詞에서는 여러가지 共通性을 보여주고 있다. 諸알타이語와 國語의 代名詞을 보면, 첫째 一人稱·二人稱이 判異한게 다른데 注目된다. 먼저 國語에서는 「나」「너」가 同一한 語頭子音 n 를 가지고 母音交替에 의해서 區別된다. 여기 對해서 諸알타이語에서는 一人稱과 二人稱은 다른 語根을

(24) 拙稿, 印歐語比較言語學의 몇 가지 課題—母音體系와 laryngeal theory 를 中心으로—(語學研究 3—1 1967), 參照.

(25) Jakobson, op. cit., p. 529.

가지고 있으며(母音交替에 의해서 區別되지 않는다는 뜻에서), 母音交替는 오히려 單數複數形에 나타난다[26]. 單者는 이미 國語의 「나」가 蒙古語의 屬格以下의 斜格形인 語根 na-와 比較될 수 있음을 補充法에 의해서 說明한바 있다[27]. 또한 一人稱複數形인 「우리」도 알타이語와의 比較가 可能함을 指摘한바 있다[28]. 따라서 問題는 二人稱代名詞에 있다. 蒙古語에서 屬格以下의 斜格形語根인 na-가 主格語인 bi에 對한 補充形으로 생각한다면 bi와 na-는 當然히 어떤 意味的인 密接한 關係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29] 그러므로 國語의 「나」와 蒙古語의 na-와의 比較가 可能한게 된다. 그리고 Ramstedt가 말한 것처럼[30] 國語에서는 일직 一人稱·二人稱 代名詞가 消滅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蒙古語의 斜格形인 na-가 國語의 一人稱形이 되었고 여기서 다시 類推에 의해서 二人稱形으로도 使用한게 되었을 可能性이 있다.

42. 諸알타이語에서 三人稱代名詞는 우리의 注目을 끈다. 蒙古語에서는 中期蒙古語나 文語에서 斜格形이 部分的으로 남아 있을뿐, 主格形은 消滅되고 다른 낱말이 여기 代置된다. 또한 퉁구스語에서도 같으나 다만 滿洲語에서만은 主格形(單數)으로 i가 남아 있다. 토이기語에도 *i는 反照所有接尾辭로만 남아 있을 뿐 獨立된 三人稱代名詞로서는 消滅

(26) 代名詞와 같은 基礎語彙에서 母音交替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祖語에서는 母音의 交替機能이 像想外로 활발하지 않았을가 생각된다. 이러한 觀點에서 國語의 「나」|「너」의 母音交替는 興味를 끈다.

(27) 拙稿, Altar 語에 있어서의 補充法에 關한 考察(東亞文化, 第一輯 1963, pp. 33~61).

(28) 拙稿, "알타이"語 一人致代名詞攷(서울大學校 論文集, 第七輯, 1958, pp. 313~339).

(29) 類推는 一般的으로 여러가지 面에서 일어난다. 數詞에서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Slavic 語의 數詞 devetī (9)과 desetī(10)에서, deveti는 desetī에서 類推에 의해서 形成된 것이다. 9를 表示하는 數詞는 다른 言語와 比較해 볼 때, 當然히 語頭에 n-가 있어야 한다(cf. Eng. nine, Goth. niun, Lat. novem, skt. nava. Lehmann, Historical linguisties, New York 1963, p. 12)

(30) G.J. Ramstedt, Einführung in die altaischen Sprachwissernschaft Ⅰ, p.68.

했다. 이와 같은 共通的인 三人稱代名詞의 消滅傾向은 우리의 注目을 끈다. 中世國語에서도 「第三人稱는 原形으로는 없고[31]」 따라서 「第三人稱은 本是 固定된 것이 없지만 흔히 "데"로 쓰인다」[32] 國語의 이러한 現象도 極히 重要한 事實로서 諸알타이語와 共通된 傾向임을 말해준다. 이와 같이 三人稱代名詞의 消滅이라는 一般的 傾向은 一人稱·二人稱 代名詞의 類似性에 못지 않게 重要한다. 이 경우 同一한 要素의 共通的인 消滅傾向은, 要素들의 積極的인 類似性에 못지 않게 重要한 事實이다. 이렇게 消滅한는데는, 그것이 消滅할만한 共通的인 要因이 있기 때문이다[33]. 이 共通的 要因은 祖語로 遡及될 수 있다.

위와 같이 國語와 諸알타이語의 代名語가 一見 不規則的이며, 一致하는 것이 없어보이지만 實은 根本的으로 同一한 共通性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國語의 系統硏究에서 代名詞에 關한限, 이것이 國語의 알타이語에의 歸屬을 否認할만한 證據가 될 수 없다.

51. 알타이語比較硏究에서 從來 數詞에 關한 硏究는 가장 큰 難關의 한나가 되어 있다. 特히 하나부터 다섯까지의 낮은 數의 數詞에서조차 類似性을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印歐語에서 數詞의 一致가 親近性 立證의 有力한 證據가 된다는 것은 이미 言及한바 있다. 그러나 이 數詞의 一致가 果然 어떤 言語에도 適用될 수 있는 普遍的인 有效性을 가지고 있고가? 印歐語比較言語者인 Benveniste도 여기 關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바 있다: 印歐語에서 數詞가 固定·安定되어 相互一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數詞體系에 어떤 內在的인 普遍的 特徵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는 印歐語社會에서 아주 늦게 發達한 物物交換과 같은 어떤 特殊한 經濟的 原因에 의하는 것이라 하여, 數詞一致에 對한 普遍的

(31) 李崇寧, 古語의 音韻과 文法, p. 66.
(32) 李崇寧, 中世國語文法—15世紀語를 中心으로—, p. 164.
(33) 國語의 이러한 問題에 關해서는 拙稿; 國語主格語尾「이」再論(學術院論文集 第五輯 1965, pp. 32~61) 참조.

인 有效性을 否認한고 있다[34]. 또한 數詞는 알 수 없는 原因에 의해서 서로 借用되는 例까지도 있다[35]. 그러므로 共通祖語의 數詞가 固定化되지 않는 段階에서 各 方言이 分裂했다면, 그들 方言에서는 數詞의 一致를 볼 수 없는 것이 當然하며 또한 그런 可能性도 充分히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또 一面 分裂段階에서 이미 낮은 數에 對한 數詞가 나타났으나 그것이 完全히 固定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分裂後에 새로운 數詞가 固定될 可能性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數詞의 散發的인 部分的 類似性이 있다면, 이러한 可能性에 의해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國語나 諸알타이語에서와 같은 경우에는 部分的 類似性을 찾기에 앞서 各 言語內에서 內的再構에 의해서 그 數詞體系를 再構해야할 것이다. 가령 日本語의 數詞體系가 이른바 倍加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現狀態에서는 그것마자 國語나 諸알타이語에서는 悲觀的이다[36]. 筆者는 다음에 內的再構와 外的比較 두 觀點에서 몇가지 事實을 살펴보려고 한다.

알타이語硏究의 現狀態에서는 비록 散發的인 몇몇 數詞의 類似性이 보인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 言語들의 親疎關係를 決定할 수는 없다. Gypsy 語의 數詞는 希臘語의 數詞와 部分的으로 顯著한 類似性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語彙에서도 같다. 그렇다고해서 Gypsy 語가 印歐語中에서 希臘語와 가장 가까운 親疎關係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Gypsy 語가 Indo-Iran 語派의 Indo 語群에 屬하며 그 原住地도 印度의 西北部임은 定說이 되어 있다. Gypsy 族이 歐羅巴의 各處에 流浪하기에 앞서 希臘語地域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기 때문에, 그때 希臘語에서 數詞가 部分的

(34) Benveniste, op. cit., p. 102.

(35) Leroy, op. cit., p. 127.

(36) Ramstedt 는 國語를 包含한 알타이語의 數詞體系에서, 數를 샐 때의 共通性인 손고락의 모양을 表示하는 言語的表現에서 그 共通性을 찾으려 한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으로 借用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52. 國語의 數詞는 大體로 1—10, 11—19, 20—90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10까지의 數詞를 基本的인 것이라 한다면, 여기 의해서 11—19와 20—90의 數詞가 形成된다. 11—19까지는 10+1, 10+2, 10+3, 10+4…와 같이 機械的으로 形成된다. 여기 對해서 20—90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한나	hɐna	10. 열	jel
2. 둘	tul	20. 스믈	sɯmɯl
3. 세	sei	30. 셜흔	sjel-hɯn
4. 네	nei	40. 마슨	mazɐn <*masɐn<* mas-hɐn
5. 다숫	tasɐs	50. 쉰	suin <*su-hɯn(?)
6. 여슷	jesɯs	60. 예쉰	jesjuin<* jes-hɯn
7. 닐굽	nilkup	70. 닐흔	nil-hn
8. 여듧	jetɯlp	80. 여든	jetɯn<* jet-hɯn
9. 아홉	ahop	90. 아흔	a-hɐn

20—40에서 20(스믈)을 除外한다면 大體로 二音節에 흔/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여기 의해서 40, 50, 60, 80도 그러한 形態素를 가졌던 것으로 再構될 수 있다. 다만 50(쉰)의 경우에는 無理가 없지 않다. 그러면 hɯn/-han은 무엇을 意味하는 形態인가? 여기 對해서는 女眞語와 比較에서 뒤에 다시 說明될 것이다. 筆者는 이것이 10을 意味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11—19가 10+1, 10+2…로 形成되는데 對해서 30—90에서는 3+10, 4+10, 5+10…로 形成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形成法은 蒙古語·토이기語 그리고 滿洲語와 共通性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a-hɐn(90)과 a-hop(9)에서 9와 90의 語基는 a-로 생각되며 이와 같이 해서 jesɯs(6)/jesjuin(60)에서 jes-, nilkup(7)/nil-hɯn에서 nil-, jetɯlp(8)/jetɯn(80)에서 jet-을 얻을 수 있다. 또한 7, 8의 (jes-)ɯs과 (jet-)ɯlp은 語基에 어떤 要素가 붙은 것으로 생각된다.

tasɐs(5)과 suin(50)은 語基가 同一하지 않으나 5의 경우만을 jesɯs(6)

과 比較하면 여기서도 역시 語基 tas-, jes- 이 抽出되며 그 뒤에 同一한 要素인 -as/-ɯs 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形態素들이 解明된다면 國語의 數詞體系를 研究하는데 있어서 決定的인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tul(2)에 對한 sɯmɯl(20)과 nei(4)에 對한 mazan(40)은 그 關係가 明確하지 않다. 그러나 sei(3)과 sjel-hɯn(30)에서는 語基가 sei- 혹은 sjel- 이 될 것인데, 이것을 sjel- 로 본다면 (3)의 sei 는 sjel 에서 變化한 것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3 을 「셋」이라 할 때, 이것은 혹 *sjel〉 *sjes〉 seis 으로 볼수는 없을가? 끝으로 sɯmɯl(20)과 mazan(40)에 對해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1—10 까지는 hana(1)가 *hadan 에서 또 tul 이 *tupul 에서 由來한 것으로 보드라도(鷄林類事등에 의해서) 역시 아무런 것도 알 수 없다. 다음에는 諸알타이語에 있어서의 數詞體系를 簡單히 살펴보기로 한다.

53. 다음 圖表에서 各 數詞의 左側에 있는 同一한 數字는 서로 比較가 可能한 것을, 그리고 右側의 符號는 國語의 數詞를 中心으로 다른 알타이語에서 比較가 可能한 것들을 表示한다. 11—19 까지는 大部分 10+1, 10+2……로 規則的으로 形成되기 때문에 省略하고, 다만 滿洲語의 15 와 女眞語만을 提示한다.

	蒙古語	滿洲語 女眞語	토이기語	國語
1	nigen	emu	bir	hana
2	qoyar/[1]ǰirin*	[1]ǰuwe*	iki	tul*
3	[2]ɤurban	ilan	üč	sei
4	[3]dörben··	duin··	tört··	nei··
5	[4]tabun▲	sunǰa	bäš	tasɐs▲
6	ǰirɤuɤan(〈ǰir〈2〉+ɤu〈3〉-〉	ninggun	alty	jesɯs
7	[5]doluɤan(*daluɤan	nadan	jätti	nilkup
8	[6]naiman〈*najinan	ǰakûn	säkiz	jetɯlp
9	yisün(〈*ycrsün)	uyun	tokuz	ahop
10	arban(〈*φarban)	ǰuwan	on**	jel
11				

12		[1]jir-xon(-xon)	▲▲	
13		[2]gur-xon		
14		[3]dur-xon		
15		tofohon▲[4]tobu-xon		
16		ni-xon		
17		[5]dar-xon		
18		[6]niu-xon		
19				
20	[7]qorin(〈qor+in〈10〉)	[7]orin	jigirmi	sɯmul
30	[8]vučin	[8]gûsin	otuz	sjelhɯn(-hɯn▲▲)
40	[9]döčin	[9]dehi	kyryk	mazɐn
50	tabin	susai	älig	suin
60	ǰiran(ǰir+an〈10〉)	ninǰu	altmyš	jesjuin
70	dalan	nadaǰu	jätmiš	nilhun
80	nayan	ǰakûnǰû	säksän	jetɯn
90	ʎeren	uyunǰu	toksan	ahɐn
100	ǰavun	tangga	jüz	on**

蒙古語의 數詞 ǰirin(2)은 이른바 女性形이라고 일컫는 것으로, 이것은 ma. ǰuwe, tung. ǰɯr(2)에 正確하게 一致하는 것으로서, 國語의 tul도 여기 比較될 것이다[37]. 여기서 興味있는 事實은 蒙古語의 2, 3, 4, 5, 7, 8의 數詞가 滿洲語의 그것과는 一致하지 않고 오히려 女眞語의 12, 13, 14, 15, 17, 18의 一音節 語根에 一致한다(左側數字 1, 2, 3, 4, 5, 6), 또한 滿洲語의 orin(20), gûsin(30), dehi(40)은 各各 蒙古語의 qorin(20), vučin(30), döčin[40]에서 借用한 것으로 본다[38]. 蒙古語의 數詞體系에서 가장 興味 있는 것은 ǰirvuvan(6)이라 하겠다. Poppe에 의하면 이것은 *ǰir(2)×*vu(3)에 의해서 形成된 것으로 본다. vurban(3), vutuvar(the 3 rd), vunan(three yearls od), vučin(30)등에 의해서 3의 語根를 *vu-로 잡는다[39]. 이러한 分析이 1—10全般에 걸쳐 이루어진다면

(37) mo. ǰirin, ma. ǰuwe, tung. ǰɯr, ko. tul의 比較에 關해서는 이미 筆者가 提示한바 있다. 拙稿, 알타이語 一人稱 代名詞攷(서울大學校 論文集 第七集 p. 335 f).

(38) J. Benzing, Die tungusischen Sprachen, p, 102.

蒙古語數詞體系가 正確히 解明될 것이나 아직까지는 그 以上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

滿洲語의 tofohon[15]는 몇 가지 重要한 事實을 暗示하고 있는 것으로 注目된다. 첫째 tofohon은 女眞語의 tobuxon과 同一한 形態로서 5+10 식으로 形成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女眞語에서 10대의 數詞가 規則的으로로 2+10, 3+10, 4+10…로 形成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滿洲語에서는 그들이 ǰuwan emu(10−1), ǰuwan ǰuwe(10−2)등과 같은 表現으로 代置되었고, 여기 15만이 原來의 形態를 維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필경 ǰirxon, gurxon, durxon 등이 使用되다가 그것이 ǰuwan emu, ǰuwan ǰuwe 등의 表現으로 代置하게 된 결과일 것이다. tofohon(15)은 sunǰa(5), susai(50)와 語頭音이 다르다. 먼저 sunǰa(5)를 보면 이것은 滿洲語에만 나타나는 形態일뿐, 다른 모든 퉁구스方言에서는 (go.) tojŋga, (olč.) tunǰa, (orok.) tunda, (uroč.) tuŋa, (udh.) tuŋan, (sol.) toŋa, (negd.) tońŋa, (ew.) tunŋa 등으로 모두 語頭音 t-를 가진 形態로 나타난다. 그래서 Benzing은 滿洲語의 sunǰa까지를 包含해서 tunga로 再構하고 있다[40]. 이렇게 본다면 적어도 蒙古語의 tabun(5), 滿洲語의 sunǰa, tofohon (5, 15)과 國語의 tasɐs사이에 類似性이 보인다. 그러나 國語의 tases에 對한 suin은 오히려 (*t-)s-로 생각되는 滿洲語의 sunǰa, susai에 類似하다. 그렇다면 國語의 suin은 國語自體內에서 語頭音*t-가 s-로 變化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滿洲語에서 借用한 것인가? 女眞語에서도 tobuxon[15]에 對한 5는 「順札」로 sunǰa이고 또한 50도 「連撒一」로 susai이다. 그리고 滿洲語의 susai가 go. 方言등에서는 各各 sosi, susaj로 나타나는데 대해서 udh. negd. ew. lam. 方言등에서는 語頭音에 t-가 있는 tuŋaza, toŋnazan, túnŋazār, tunŋanmēr 등으로 나타난

(39) N. Poppe, Introduction to Mongelion comparative studies, p. 245.
(40) Benzing, op. cit., p. 101.

다. (〈5〉의 경우에는 滿洲語에서만 sunǰa, 다른 方言에서는 모두 語頭가 t-로 나타난다. 이 경우 go. sosi는 滿洲語에서의 借用語로 본다〈Benzing〉). 그러므로 혹 sunǰa, susai와 tobuxon는 서로 語源이 다른 形態들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Benzing은 滿洲語 tofohon의 -hon이 蒙古語의 (20)을 表示하는 (qorin) xorin과 關係가 있지않나 보고 있으나[41], 筆者은 다른 見解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뒤에 다시 說明될 것이다.

Poppe는 蒙古語의 20—50의 數詞는 語尾-in으로 또 60—90은 -an/-en으로 끝나고 있는데 注目하면서, 이것은 *on의 痕跡이 아닌가 보고 있다. *on은 토이기語의 on(10)에 一致하는 것이다. 토이기語에서도 一例를 들면 säksän(80), toksan(90)은 各各 säkiz(8)+on(10), tokuz(60)+on(10)으로 形成된 것이다[43]. 그리고 Räsänen은 이 on과 國語의 on(100)에 對해서, 後者는 前者에서 借用된 것으로 보며 또한 女眞語의 gur-xon (3+10), dur-xon(4+10)등의 xon도 同一語源으로 보고 있는데[44], Benzing이 보는 것보다 妥當한 見解라 하겠다. 筆者는 여기 또한 國語의 sjel-hɯn(30), nil-hɯn(90)등의 -hɯn과의 比較가 可能하다고 본다.

Tschuwasch語에서도 80—90은 各各 sakăr-vun, tăhar-vun (*toxur-van)이며 vun (*van)도 on에 一致한다.[45] 이처럼 80—90은 8+10, 9+10으로 形成되는데 대해서 20—70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Räsänen은 20—70의 數詞가 80—90보다 더 뒤에 形成된 것으로 본다.[46] 이러한 80—90

(41) Ibid., p. 102.
(42) Poppe., op. cit., p. 247.
(43) 이기語의 數詞에 關해서 仔細한 것은, M. Räsänen, Materialien zur Morphologie der Türkische Sprachen, Helsinki 1957, p. 78 f.
(44) Ibid., p. 79.
(45) J. Benzing, Das tschuwaschische (Philologae Turcicae Fundamenta, Wiesbaden 1959, p. 371).
(46) Räsänen, op. cit., 78.

의 形成法은 蒙古語에서와 같고 또한 滿洲語의 60—90에서 ninǰu(60), nadanǰu(70)와 같이 -ǰu로 끝나는 것과도 같다(-ǰu는 ǰuwen〈10〉). 이러한 見地에서 볼 때, 國語의 경우에도 sɯmɯl(20)을 除하고는 그 形成法이 같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위에서 11—19, 20—90의 數詞形成의 共通性을 보았다. 그렇다고 이러한 共通性이 親近性을 立證할만한 證據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作業을 통해서 몇 가지 새로운 事實을 얻게 된다. 첫째 國語의 tasɐs은 滿洲語의 sunǰa 보다는 다른 方言形 혹은 女眞語의 tobu-xon 또는 15의 tofohon과 比較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볼 때 토이기語의 bäš를 除外하고는 顯著한 類似性이 보인다. 그리고 國語의 suin은 tasɐs 보다도 滿洲語의 susai(50)과 比較될만 하다. 또한 國語의 a-hop과 a-hɯn에서 語根a-가 抽出되는 點등이다. 이밖에 從來에도 指摘된 바과 같이 國語의 「네」는 諸알타이語의 4을 表示하는 數語들과 가장 顯著한 類似性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듯 1—10까지의 基本的인 數語에서는 거우 몇몇 斷片的인 類似性이 散見될따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數詞自體의 比較보다도 各言語의 數詞體系의 內的再構가 더 重要한 作業이 되어야 할 것이다.